

남북 경제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이호근 /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남북 경제 협력은 이제 전환점에 이르렀다. 그 동안의 단순 물자 교역 중심에서 위탁 가공 교역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합작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위탁 가공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류, 신발, 아크릴사 등의 대상 분야를 앞으로는 전자 제품, 기계, 기타 조립 분야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작 투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고, 북한의 저임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에서의 합작 투자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한 직접 투자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투자 보장 협정, 청산 거래 협정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위탁 가공과 물자 교역에 치중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섬유·의류 중심의 경협 승인에서 벗어나 가전 분야, 소규모 통신, 운송 등 기본 인프라 시설 투자도 시범적 경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서론

1991년 이후 1994년까지 거의 2억 달러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던 남북한간 교역 규모가 금년들어 9월까지 통관 기준으로 2억 1,589만 달러(대북 지원 쌀 및 중유 제공 분 제외, 이를 포함하면 4억 5,892만 달러)에 달해 연간으로는 약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남북간 정치적 긴장 관계에 따라 침체되었

던 남한 기업의 대북 직접 투자도 정부의 「5.17 경협 승인 조치」에 따라 활기를 띠고 있다.

물론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이 남북간 경협 확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 경제 협력은 단순 교역에서 벗어나 위탁 가공 교역, 나아가 직접 투자 형태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는 남북 경제 협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

문이다.

비록 우여곡절을 겪고는 있지만 북미간의 핵 합의도 아직 그런대로 이행되고 있어 북미간의 관계 개선의 확대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핵합의 이행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월 4개항에 걸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북미간 경제 관계의 회복은 외국 자본의 대북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섬유, 신발 등 사양 산업의 유희 설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향후 대북한 진출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대북 투자가 지니는 장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생산력 미비로 인한 경쟁력 있는 제품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설재 반출을 통한 위탁 가공 교역의 확대와 투자 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남북 경협 확대 조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¹⁾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심각할대로 심각해진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투자 관련 법령을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있다.²⁾ 특히, 유희 시설의 활용과

아울러 대외적인 충격을 완화하면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외가공 교역의 확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남북한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도움을 준다.

이하에서는 남북한 교역 구조와 북한의 대외 교역 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특징을 찾아내고, 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남북 경제 협력의 현황

1. 교역 현황

1995년 1~9월 중 남북한 교역 실적(통관 기준)은 4억 5,892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 4,616만 달러에 비해 약 3배나 증가하였다. 여기서 원조 성격의 대북 쌀 지원(2억 3,298만 달러)과 중유 제공분(1,006만 달러)을 제외하더라도 2억 1,509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47.7% 증가하였다.³⁾ 반입 통관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31.1% 증가한 1억 7,733만 달러였으며, 반출 통관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2억 8,160만 달러였다. 여기서 대북 쌀 지원분과 중유 제공분을 제외하더라도 3,856만 달러

1) 정부의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 방침은 「신경제 5개년계획」에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단계에서는 식교역을 통한 물자 교역과 소규모 시범적인 합작 투자가 남북 경협의 주가 될 것이며, 본격적인 합작 투자는 2단계 이후의 과제로 되어있다. 즉, 남북 관계의 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의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2) 북한은 나진·선봉자유경제지대 설치 이후 28개의 외자 유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함으로써 알려지고 있다.

3) 동기간중 명키C유 92,291 톤, 쌀 147,520 톤이 북한에 인도되었다. 통일원, "95.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

연구논단

<표 1> 연도별 반출입 통관 현황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비 %)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 1~9월	증감률
반 입	105.7	162.9	178.2	176.3	177.3	31.1%
반 출	5.5	10.6	8.4	18.2	281.6(38.6)	26배(3.5배)
합 계	111.3	173.4	186.6	194.5	458.9(215.1)	3배(47.7%)

자료: 통일원, "1995.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

주: ()은 대북 쌀 지원 및 중유 제공 분을 제외된 수치

로 전년 동기에 비해 3.5배 증가하였다.

반입 증가는 금괴(전년 동기 대비 39.3%), 아연괴(동 대비 33.8%), 빌레트(81.2%) 등의 철강 금속류가, 반출 증가는 직물류(전년 동기 비 3.4배)와 설탕(동 대비 19.1배) 등이 주도하였다.

상품별 반입 통관 비율은 철강 금속 76.7%, 섬유류 11.9%, 농림수산물 7.1%, 광산물 1.6%, 수산물 1.0%, 기타 1.7%이다. 주요 개별 품목별 반입 통관 실적은 금괴가 반입 통관 총액의 37.6%인 6,670만 달러, 아연괴가 24.6%인 4,366

만 달러, 빌레트가 7.3%인 1,301만 달러를 차지, 이 3개 품목이 반입 총액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상품별 반출 통관 비율은 대북 쌀 지원 및 중유 제공 분을 제외할 경우 섬유류 71.0%, 철강 금속 4.0%, 농림수산물 1.9%, 기계 전자 1.3%, 화학 제품 1.2%, 기타 20.6%로 화학 제품을 제외한 전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개별 품목별 반출 통관 실적은 직물류가 48.0%인 1,853만 달러, 설탕이 17.1%인 659만 달러, 스웨타 원부자재가 7.6%인 293만 달러,

<표 2> 상품별 반출입 구조(1995년 1~9월)

(천 달러, %, 전년 동기 비 %)

반 입				반 출			
품 목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품 목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철강금속	136,005	76.7	32.9	섬유류	27,394	71.0	3.2배
광 산 물	2,907	1.6	2.6배	농수산물	733	1.9	7.6배
농림산물	12,489	7.1	15.4	철강금속	1,531	4.0	
수 산 물	1,737	1.0	31.4	기계전자	514	1.3	18.4배
섬 유 류	21,128	11.9	43.6	화학제품	460	1.2	65.3
기 타	3,063	1.7	34.1	기 타	7,931	20.6	10.3배
				(설탕)	(6,586)	(17.1)	(19.1배)
합 계	177,329	100.0	31.1	합 계	38,562	100.0	3.5배

자료: 통일원, "1995.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월

주: 1) 통관 기준

2) 반출에서 대북 쌀 지원 및 중유 제공 분 제외

<표 3> 연도별 위탁 가공 승인 현황

(천 달러, 전년 동기 비 %)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10월)	증감률
반 입	23 (0.01)	556 (0.3)	4,385 (2.3)	16,598 (8.2)	2,2241 (11.3)	58.6
반 출	13 (0.04)	413 (3.22)	3,611 (35.2)	11,966 (47.1)	16,328 (29.2)	62.4
합 계	36	969	7,996	28,564	38,751	66.3

자료: 통일원, "1995.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

주: 1) ()은 반출입액에서 위탁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

2) 1995년 1~10월 반출 승인 비중은 반출 승인 총액 중 중유 제공 분 618만 달러를 제외한 수치로 나눈 것임(대북 쌀 자원은 무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시)

의류 부속품이 6.5%인 25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 형태에 있어서 단순한 물자의 반입출 외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되는 위탁 가공 교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95년 1~10월 중 위탁 가공 교역은 반입액 승인기준 2,2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비 58.6% 증가하였으며, 전체 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 2.3%, 1994년 8.2%에서 1995년 1~10월 중에 11.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반출액 중에서 위탁 가공 관련 금액의 비중이 1993년, 1994년보다 낮아진 이

유는 위탁 가공 승인을 받지 않은채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EU나 일본 등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이 경공업 위주의 수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고임금 때문에 노동 집약 산업을 해외에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 가공 교역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일치되고 있어 남북 교역 확대를 주도하는 분야로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통관 기준으로 볼때 교역 수지는 남북 교역의 구조적 특성상 계속 반입 초과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9월 중 총 남북 교역 규모에서

<표 4> 남북 교역에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통관 기준)

(구성비, %)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 1~8월
99.6	91.2	95.0	93.9	95.5	90.1	82.4

자료: 통일원, "1995. 9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0.

4) 대체로 석유류의 반출은 위탁 가공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탁 가공용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사 업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승인일
(주)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공단 내 시즈 등 3개 사업 • 투자 금액: 512만 달러 	1995. 5. 17.
(주)고합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 등 4개 사업 • 투자 규모: 686만 달러 	1995. 5. 17.
(주)한일합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터, 봉제, 모포 등 4개 사업 • 투자 규모: 980만 달러 	1995. 6. 26.
(주)국제상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 제조 • 투자 규모: 350만 달러 	1995. 6. 26.
동양시멘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톤 규모의 시멘트 사일로, 무대 시설 • 투자 규모: 300만 달러 	1995. 9. 15.
(주)녹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중 치료제인 유로키나제 제조·판매 • 투자 규모: 300만 달러 	1995. 9. 15.
동봉해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 설비: 30톤급 크레인 설치 등 • 투자 규모: 500만 달러 	1995. 9. 15.

자료: 일간신문 내용을 기초로 대우경제연구소 작성

남한의 반입 비중은 대북 쌀지원 및 중유 제공분을 제외할 경우 82.49%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3년을 정점으로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반입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위탁 가공을 위한 섬유류의 반출 증가와 설탕 반출의 대폭 증가에 기인한다. 경제난에 따라 교역 상품 및 외환 부족 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입장이 남한과의 교역을 공식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상품이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원산지 표기 삭제할 요구하는 등 남한 상품의 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소비 수준과 비교할 때 남한 상품이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고급인 섬유 등은 반입 위주의 교역이 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2. 투자 현황

정부는 남북 경험 활성화 조치 이후 1994년 12월 이래 기업의 방북을 허용하였으며,⁵⁾ 올 5월에는 (주)대우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 고합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사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다. 6월에는 대북 투자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제정, 대북 투자 송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7월에는 (주)대우-남포공단 사업 관련 기술자 방북을 허용하였다. 동 사업들은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전자(1,400만 달러)의 통신 사업, (주)쌍

5) 1994년 11월부터 1995년 9월 현재까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은 28개사로 이중 20개 기업이 방북하였다.

용(1,500만 달러)의 나진개발촉진센터 건립 등의 사업은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제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주)대우는 현재 투자금을 송금 준비중에 있다.¹⁰⁾

III. 북한의 대외 교역과 남북 교역과의 비교

1.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

1994년 북한의 대외 교역 총액은 21.1억 달러로 1993년에 비해 20.2% 감소하였다. 199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온 북한의 대외 무역은 1992년과 1993년에는 26억 달러대에서 안정되는 듯 했으나, 1994년에는 핵분제로

인한 긴장 고조와 김일성 사망 등 국내외적인 정치·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5년 상반기에도 중국, 러시아 등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교역이 대폭 감소함으로써 대일 교역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일원의 잠정 평가에 따르면 1995년 상반기 중 북한의 교역 실적은 전년 동기 비 6.1% 감소한 9.3억 달러(수출 2.5억 달러, 수입 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아직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일본은 주로 수출 시장, 중국은 수입 시장으로 양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6>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백만 달러, 전년 비 %)

구 분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 총액		
	1994년	1995 상반기	증감률	1994년	1995 상반기	증감률	1994년	1995 상반기	증감률
중 국	199.2	34.6	-70.1	424.5	237.5	-75	623.7	272.1	-19.1
일 본	322.7	138.0	-24.9	170.8	105.1	-47.6	493.5	243.1	-33.8
러 시 아	40.0	1.5	-37.6	100.0	31.5	-72.7	140.0	33.0	-41.1
기 타	277.1	80	-33.3	573.7	310	-6.9	850.8	390	-4.9
총 계	839	250	-30.1	1,269	680	-7.9	2,108	930	-6.1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1995. 8; 통일원, "1995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 1995. 10.

주: 1995년 상반기 수치는 통일원 잠정 평가액임.

6) 남포공단의 성공업 공장 가동을 추진중인 (주)대우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경에서 북한의 조선삼천리총회사와 공장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합영계약서 및 공장 가동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영계약서 문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봤을 뿐 최종 시명은 못한 상태이다. 한편, 그동안 기술 지도 등을 위해 북한에 머물다 9월 26일 귀국한 7명의 기술진 중 일부가 10월중 다시 방북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1995년 10월 12일자.

2. 대외 교역 상품 구조

1994년중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역 거래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으나, 수출에 있어서는 식물성 생산품, 화학공업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 증가했고, 수입에 있어서는 기계류와 전기

<표 7> 북한의 대외 무역 상품 구조(1994년)

(백만 달러, %, 전년 비 %)

수출 상품 구조				수입 상품 구조			
품 목	금액	비 중	증감률	품 목	금액	비 중	증감률
•방직용 섬유와 동제품	198.8	23.7	-1.1	•광물성 생산품	200.0	15.8	-40.4
•비금속과 그 제품	187.8	22.4	-36.0	•방직용 섬유와 동제품	185.0	14.6	4.8
•식물성 생산품	111.2	13.2	175.5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178.0	14.0	22.9
•광물성 생산품	75.2	9.0	-3.6	•비금속과 그제품	106.6	8.4	-34.3
•산동물 및 동물성 생 산품	61.1	7.3	13.5	•화학공업 생산품	64.3	5.1	-35.8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54.3	6.5	-15.4	•식물성 생산품	59.9	4.7	-62.4
•플라스틱·고무 및 동 제품	41.0	4.9	158.9	•수송기기	56.2	4.4	-59.8
•화학공업 생산품	24.5	2.9	59.3	•플라스틱·고무 및 동 제품	42.4	3.3	22.5
•수송기기	2.4	0.3	-96.6	•기 타	376.4	29.7	8.4
•기 타	83.0	9.9	-5.2				
합 계	839.2	100.0	-17.8	합 계	1,268.8	100.0	-21.7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1995. 8.

기기가 증가했다.

수출에 있어서는, 식물성 생산품이 175.5% 증가율을 보여 전체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송이버섯, 벗짚 등의 수출이 늘어난 때문이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이 집중되었다. 또 하나 특징은 북한의 전통적인 최대 수출 상품인 비금속제품의 수출이 36%나 줄어들어 1억 8,783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년도와 비슷한 약 2억 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한 방직용 섬유 제품이 1994년도 북한의 최대 수출 상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수출은 철강 및 아연 등 비철금속이 더 이상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한 반면, 섬유제품이 최대 수출 품목으로 등장함으로써 경

공업 제일주의의 경제정책이 다소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수출 주도 상품이 1994년에 전통적인 중공업 제품에서 섬유류, 농수산 가공품 등 경공업 제품으로 전환된 점은 북한 산업 구조의 재편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⁷⁾

7) 1993년 말 이래 북한은 상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 농업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고, 무역 규모도 격감 추세를 보이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공업 제품이 북한 최대의 수출 상품으로 부상한 것은 3대 제일주의 정책 중 경공업 제일주의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농수산업이 2.7%의 성장을 보인 것은 미국 생산이 냉해를 보인 199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 표 8 > 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 비교(남한 대 여타 국가)

(구성비, %)

구 분	남한에 대한 수출 비중(A)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B)		비 고
	1993년	1994년	1995년 상반기	1993년	1994년	
섬유제품	0.9	2.2	3.3	18.8	21.5	A, B: ↑
비금속제품	15.1	16.2	37.2	13.7	6.1	A: ↑, B: ↓
농수산물	1.0	1.8	0.0	9.8	18.8	A: ↓ B: ↑
광산물	0.1	0.2	0.7	7.5	8.8	A, B: ↑
기계·전자	-	-	0.0	16.1	6.5	B: ↓
화학제품	0.1	0.1	-	3.0	7.7	B: ↑
수송기기	-	-	-	6.8	0.3	B: ↓
기 타	0.2	0.5	0.9	16.7	9.4	-
합 계	17.5	21.0	46.1	82.5	79.0	A: ↑, B: ↓

자료: KOTRA, "1994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1995. 8.; 통일원, "1995년도 상반기 북한 경제 동향", 1995. 9.; 통일원, "7월 중 남북 교류 협력 동향", 1995. 8.

주: 수출 비중은 남한의 반입액과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액(=북한의 수출액-남한 반입액)을 북한의 총수출액으로 나누었다. 현실적으로 남북간 교역의 대부분이 제3국을 통한 간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포함시키면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 표 9 > 북한의 수입 상품 구조 비교(남한 대 여타 국가)

(구성비, %)

구 분	남한으로부터의 수입 비중(A)			여타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B)		비 고
	1993년	1994년	1995년 상반기	1993년	1994년	
섬유제품	0.4	1.0	2.8	11.6	13.6	A, B: ↑
비금속제품	0.0	0.0	0.2	10.0	8.4	A: -, B: ↓
농수산물	0.0	0.0	0.1	8.8	4.7	A: -, B: ↓
광산물	-	-	-	20.7	15.8	B: ↓
기계·전자	0.0	0.0	0.0	8.9	14.0	B: ↑
화학제품	0.1	0.1	0.0	9.4	8.3	A: -, B: ↓
수송기기	-	-	-	8.6	4.4	B: ↓
기 타	0.0	0.3	1.0	21.4	29.4	-
합 계	0.5	1.4	4.2	99.5	98.6	A: ↑ B: ↓

자료: KOTRA, "1994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 1995. 8.; 통일원, "1995년도 상반기 북한 경제 동향", 1995. 9.; 통일원, "7월 중 남북 교류 협력 동향", 1995. 8.

주: 1) 수입 비중은 남한의 반출액과 여타 국가에 대한 수입액(=북한의 수입액-남한의 반출액)을 북한의 총수입액으로 나누었다. 현실적으로 남북간 교역의 대부분이 제3국을 통한 간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포함시키면 이중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2) 남한의 반입액은 대북 쌀 지원과 중유 제공 분을 제외하였다.

3. 남북한 교역과 전체 교역 구조와의 비교

상품별로 보면 남한의 대북한 반출입에 있어 섬유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수출입 상품 변화와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의류와 같은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 가공 형태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음이 남북한 교역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여타 국가에 대한 철강 등 비금속 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데 비해 남한의 반입 비중은 대폭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현재 남한이 북한산 비금속 제품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였는 바, 1995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였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에 운송비 비중이 큰 품목일 경우 북한산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수입에서 자본재나 소재의 수입선으로서 남한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 이외의 국가로부터 이들 상품의 수입 비중이 비금속 제품 8.4%, 기계·전자 14.0%, 화학제품 8.3%, 수송기기 4.4% 등 35.1%에 이르고 있으나, 남한으로부터 반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을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원인이긴 하나, 남한 또한 이들 품목을 전략 불자 등으로 분류하여 대북 반출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사실 북미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이 필요 불자를 제3국에서 조달 가능하게 되는 추이에 맞추어 가면서 소위 민감 품목에 대한 반출 규제를 해제해 나아가

야 할 것이다.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대북 중유 제공 등은 남북한간 상호 보완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예로 지적 될 수 있을 것이다.

IV. 남북 경제 협력 추진 방향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은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단순 물자 교역 위주로 남한이 북한의 1차 산품을 반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공산품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생산 수준으로는 남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남한의 설비와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이 단순 교역 중심에서 위탁 가공 교역으로 나아가서는 합작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물자 교역에 있어서도 반출입 품목의 발굴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된다면 남북한 물자 교역은 현단계에서도 확대될 소지가 적지 않다. 확실한 수출 산업이 없는 북한으로부터 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반입하는 방법도 북한의 수출 증대에 기여 할 것이다. 물론 북한산 물품 중 수출 가능하거나 고부가 가치화할 수 있는 물품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위탁 가공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류, 신발, 아크릴사 등 위탁 가공 교역 주요 대상 분야를 앞으로는 전자 제품, 기계, 기타 조립 분야 등으로 품목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고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의 영향을 덜 받으며, 당장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공업 분야의 합작 투자가 남북 경제협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으로도 당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임의 노동력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공업 분야의 합작 투자는 결코 마다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북한 직접 투자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 투자 보장 협정, 청산 거래 협정 체결 등이 진척이 되어야 한다. 정부적 차원에서 대북 투자 자산 및 영업 활동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업이 투자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시작된 100여건 이상의 조총련계 합영기업 중 지금까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합영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안정성을 갖고 지속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위탁 가공과 물자 교역에 치중하면서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위탁 가공용 시설의 대북 반출과 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남북한 위탁 가공이 단순한 임가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산업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일단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위탁 가공을 위한 시설재 반출에 있어 섬유·의류 분야는 북한도 유휴 설비가 많아 별로 원치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합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섬유·의류 분야 중심의 경험 승인에서 벗어나 가진 분야, 소규모 통신, 운송 등 기본 인프라 시설 투자도 시범적 경험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북한에 제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승인하여 북한으로부터 불필요한 신뢰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당국 배제 기업 선호' 전략, 즉 '민관 분리' 정책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남북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 정부의 조정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기업·민간 경제단체를 앞세우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중국 지역에 경제단체 및 무역상사의 신규 사무소 설치를 증가시키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인들의 대북 직접 접촉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남북 기업인들간의 교역 상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국내 환경이 조속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 교류는 물적 교류는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남북 경제 확대를 북한 대외 무역 및 경제의 대남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대북한 입지는 그만큼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8) 재킷, 셔츠, 코트, 바지 등 의류 분야에서만 이뤄지던 위탁 가공 교역이 전자산업을 포함, '양심 전환' 양상을 보이고 있다. LG는 지난 7월 북경에서 북한측과 컬러TV 위탁 조립 생산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삼성 그룹도 올 연말부터 TV용 스피커를 북한에서 위탁 조립 생산키로 했다. 동아일보, 1995. 10. 7일자.